

1. 新羅와 高麗

1. 眞隱¹⁾者能顯也요 眞顯者能隱也라

2. 成我者는 朋友也라

3. 騏驎²⁾之足이 一日千里니 駑馬十駕면 亦至요 溪澗³⁾之水가 萬折而東
流하여 終至於海니라

4. 二儀⁴⁾初判後에 物種萬紛然⁵⁾이라
有石中含質은 無人外奪堅이라
勢堪從擊破언정 性莫失生全이라
素受形資地를 難移守自天이라
鐵慙融作器요 銅恥鑄成錢이라
比若賢良士하니 操心固莫遷하라

5. 視蝸角如牛角하고 齊斥鷃⁶⁾爲大鵬하라

1) 眞隱 : 참다운 은자隱者.

2) 騏驎 : 준마駿馬. 천리마.

3) 溪澗 : 산골짜기의 개울.

4) 二儀 : 음陰과 양陽. 하늘과 땅.

5) 紛然 : 어지러이. 뒤섞여서 어지러운 모양.

6) 斥鷃 : 작은 새의 일종. 쇠박새(참새목).

6. 不幸由己니 何不自反고

7. 莫不信於背約⁷⁾이라

8. 以賢臨人則人不與하고 以智矜人則人不助니라

9. 英雄豪傑이 有建功於世者가 多不能保其終이라

10. 賞而當其功이면 則爲善者勸하고 刑而當其罪면 則爲惡(악)者懲矣리라

11. 無其實而有其名이면 鬼神惡(오)之하고 雖有其實이나 自暴(폭)於外면 則爲人所怒니라

12. 善陣不戰하고 善敗不亡이라

7) 背約 : 약속을 어김.

13. 天有五行⁸⁾하여 萬物化生⁹⁾하나니 得其秀者는 有人¹⁰⁾之名이니라

14. 山水遊觀한대 惟心無私累¹¹⁾라야 然後可以樂其樂(락)也라

15. 木之生久則必聳乎巖壑¹²⁾하고 水之流久則必達乎溟渤¹³⁾이니라

16. 爲治之道는 莫切(절)於修德이요 弭災¹⁴⁾之要는 尤切於恤民이니라

17. 古諺云 一人善射에 百夫決拾¹⁵⁾(습)이라하니 言效之者衆也라

18. 余欲外今而內古이라

8) 五行 : 만물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다섯 가지 원소(元素). 곧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

9) 化生 : 천지·음양·남녀 등의 정精이 생장生長·화육化育하는 일.

10) 有人 : 예를 들거나 가정할 때의 불특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

11) 私累 : 집안 생활에 관한 부담. 또는 사욕私慾에 얽매임.

12) 巖壑 : 산과 계곡.

13) 溟渤 : 명해(溟海)와 발해(渤海). 일반적으로 큰 바다를 이름.

14) 弭災 : 재앙災殃을 없게 함.

15) 決拾 : 활을 쏠 때 오른손 엄지에 끼는 각지와 왼팔 소매를 묶는 팔찌.

19. 他人事는 如食冷粥이라

20. 欲子孫之佳는 人之至願이로대 而顧多徇情愛而忽訓勅하니 是猶不耘
苗而望禾熟이니 寧有是理리오

21. 行有淺深하여 因跡而著하고 跡有異同하여 因心而見(현)이라

22. 何謂處世之道요 窮不失義하고 達不離道요 而用捨不隨乎時하고 行
藏¹⁶⁾惟其所宜也라

23. 羣輕折軸하고 積羽沈舟라

24. 朋友雖不可無나 亦不可不慎이라

16) 行藏 : 나아서 도道を 행함과 물러나서 숨는 일. 또는 세상에 나가 벼슬함과 물러나 은거하는 일.

25. 今日所爲를 明日難改요 朝悔其行이라가 暮已復(부)然이라

26. 道吾過者는 是吾師요 談吾美者는 是吾賊이라

27. 成性易(이)하고 存性難이라

28. 欲與第一流友인댄 當先使己爲第一人이라

29. 輕敵은 必敗之理라

30. 莫見者隱이며 莫顯者微니라

31. 托爲人言하여 陰濟己意라

32. 東隅¹⁷⁾之逝는 雖不可追하나 而桑榆¹⁸⁾之失은 補之非晚이라

17) 東隅 : 동쪽 모서리, 즉 해가 뜨는 곳이므로 ‘처음’ 또는 ‘이전’을 뜻함.

18) 桑榆 : 뽕나무와 느릅나무 끝을 석양빛이 비춤을 뜻하여, ‘마무리’ 또는 ‘이후’를 뜻함.

33. 捨則石이요 用則器니라

34. 言工無施면 不若無言이라

35. 廁鼠數(삭)驚社鼠疑하여 安身未若官倉嬉라
志須滿腹更(갱)無事하나 地塌天傾身始危라

36. 自重其身者를 人不敢輕之니라

37. 毋自欺三字는 是吾平生所自勉者니라

38. 飢而待食엔 晷刻¹⁹⁾猶時月也라가 及其飽也則忘食矣요 勞而待息엔 跬步²⁰⁾猶千里也라가 及其佚也則忘息矣니 以此知內足者無外待矣라

39. 如使悠悠²¹⁾汎汎²²⁾하여 塗澤²³⁾而緣飾²⁴⁾之요 以望其實功은 此何異 於種焦穀而求其遂也리오

40. 若逢惡(악)臭어든 似防勁敵하여 用檢言動이면 庶免墮落하리라

19) 晷刻 : 짧은 시간.

20) 跬步 : 반걸음.

21) 悠悠 : 끝없이 이어지는 모양.

22) 汎汎 : 떠있는 모양. 떠다니는 모양.

23) 塗澤 : 분을 발라 곱게 꾸밈. 곧 화장(化粧)함.

24) 緣飾 : 치장함.

41. 一日不共이면 便(변)廢天職이니 孰昏且狂하여 怠慢放逸가

42. 小器易(이)盈이요 潢潦(요)²⁵⁾易(이)竭(걸)이라

25) 潢潦 : 땅 위에 고인 빗물.

43. 自古言路²⁶⁾開而不治者未之有也요 言路閉而不亂者亦未之有也니라

44. 事有便於始者는 視倣於終이요 得於前者는 爲式於後니라

45. 無端²⁷⁾萬累苦侵尋하니 欲挽天河²⁸⁾洗此心이라
有過不貳顏氏子²⁹⁾여 高風千載起人欽이라

46. 爲學大患은 在妄意³⁰⁾躡等³¹⁾하고 助長欲速이니 此私意已勝이라 未
有私勝而能成學者也니라

47. 世固未有淺之未能而能早其深하고 邇之未能而能宿其遠者니라

48. 其始也過라도 而其終也能改면 則惟其改之爲貴니 而其過不必掩也라

26) 言路 : 임금이나 조정에 말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이르는 말.

27) 無端 :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음.

28) 天河 : 은하(銀河).

29) 顏氏子 :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 이름은 회(回). 공자(孔子)의 수제자.

30) 妄意 : 마음대로. 제멋대로. 망령된 생각.

31) 躡等 : 등급을 건너뛰. 순서를 무시함.

49. 凡遇不得意事에 試取其更(강)深者하여 譬之면 心次自然涼爽이니 此
降(강)火³²⁾最速之劑니라不

50. 謙者德之基요 勤者事之幹이요 詳者政之要요 靜者心之體라

51. 吾心克公하고 吾事克正이면 則雖有百千虵虺라도 何足以動吾一髮哉
리오

52. 騎馬에 欲率奴라

53. 水深可知로대 人心難知로다

54. 釜底가 笑鼎底라

55. 在彼則知拑撫³³⁾之요 在此則欲覆(부)蓋³⁴⁾之라

32) 降火 : 심화(心火)를 가라앉힘.

33) 拑撫 : 남을 공격할 자료를 찾아 모음.

34) 覆蓋 : 덮어 숨김. 가림.

56. 但所見聞을 不以不正이요 凡習行을 不使放侈縱慾³⁵⁾니라

57. 同乎石也로대 珉玉少而砢砢³⁶⁾多하고
均乎馬也로대 騏驎³⁷⁾少而駑駘³⁸⁾多로다

58. 人情은 古今同이라

59. 見人强하고 我必媚疾³⁹⁾之는 恥己之不若故也니라

60. 作事를 切(체)須詳審謹慎이요 不可輕率怠緩⁴⁰⁾이라

61. 規行矩止하고 疾徐合宜⁴¹⁾하여 欲其重以致敬은 恐其動而多危니라

35) 縱慾 : 욕심대로 함.
36) 砢砢 : 옥과 비슷한 아름다운 돌.
37) 騏驎 : 준마(駿馬)
38) 駑駘 : 둔한 말.
39) 媚疾 : 시기하고 미워함.
40) 怠緩 : 게으르고 해이함.
41) 合宜 : 적절함. 알맞게 됨.

62. 造次⁴²⁾失輕重하면 俄然⁴³⁾判聖狂이라

63. 當動而動이면 動亦無尤하고 當言而言이면 言亦無吝이라

64. 心閒身自閒이라

65. 惜言如金하고 韜跡如玉하라 淵默沈靜⁴⁴⁾하여 矯詐莫觸하고 斂華于裏하여 久而外燭하라

66. 喜時言은 諂而夸하고 怒時言은 激而乖니라

67. 參(참)族人婚姻會에 勿妄論婿婦優劣하라

42) 造次 : 잠깐. 잠시.

43) 俄然 : 갑자기. 돌연히.

44) 沈靜 : 차분함. 진중함.

68. 遜雖爲善之符나 然過於分하여 而失其本이면 則其流가 鄙而詐也라

69. 退溪先生이 僑居漢城⁴⁵⁾할새 隣家有栗樹하여 數(수)枝過牆하여 子熟落庭이라 恐兒童取食하여 拾(습)而投之牆外라 許衡⁴⁶⁾이 暑中過河陽할새 渴甚한대 道有梨하니 衆爭取食하나 而獨危坐⁴⁷⁾라 或曰 世亂하여 此無主니이다하니 曰 梨無主나 吾心豈無主乎리오하다

70. 學古而泥은 非眞古也라 酌古斟今이 今眞古也라

71. 嘯(질)咤拂鬱⁴⁸⁾者는 心常不滿이라 故善尤人하고 人亦惡(오)之라 笑言擁糝者는 心常自足이라 故能愛人하고 而人亦敬之라

72. 都令⁴⁹⁾喪에 九方相⁵⁰⁾이라

45) 漢城 : 지금의 서울 지역에 해당한다.

46) 許衡 : 중국 원나라 때의 유학자儒學者. 회주 하내懷州河內 출생.

47) 危坐 : 꿇어 앉음. 단정하게 앉음.

48) 拂鬱 : 분하고 답답함.

49) 道令 :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50) 方相 : 역귀疫鬼와 산천의 요괴를 몰아낸다는 전설상의 신.

73. 不須歎無友하라 書帙⁵¹⁾堪輿遊라

74. 豆腐喫이拉가 齒或落이拉

75. 出乎心, 發乎口는 在乎己라 若善若否(비)를 施乎事하니 乃成乃毀니
라

76. 華大者는 未必有其實이라

77. 朋友者는 第二吾라

51) 書帙 : 책, 서적.

78. 以福家稱者는 便(변)非福家요 以智士稱者는 便非智士라

79. 世治則君子志於退讓하고 世亂則君子志於退藏하니 其爲退則一也라
金忠節鉉曰 每事思退라 易(역)三百八十四爻에 未聞有退凶者라 乾
乾⁵²⁾不已는 惟進德修業이라야 爲然이라하다

80. 不志於退而進者는 其行易(이)跲이라

81. 將取姑與之術은 特老氏⁵³⁾言之耳라 吾儒則曰讓以得之라

82. 擇步於夷라도 猶憂其跌이라

83. 淸而不刻하고 和而不蕩하고 嚴而不殘하고 寬而不弛하라

84. 古之隱者通하나 今之隱者拘라

52) 乾乾 :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 모양.

53) 老氏 :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도가(道家)의 시조.

85. 處困如亨하고 視醜如妍하라 一言有可以終身需用이라

86. 常蓄名山大澤之氣하면 則氣不慊(협)하고 常思鳳凰麒麟之食(사)하면
則食(식)不苟하고 常存孤臣孽子⁵⁴⁾之心하면 則心不肆라

87. 過於清白⁵⁵⁾者는 其後必有以貪墨⁵⁶⁾亡身하고 過於恬退⁵⁷⁾者는 其後
必有以躁競⁵⁸⁾亡身이라

88. 聖賢多畏하고 英雄多忌라

89. 天下有不械而罪者五니 高位一也요 清名二也요 多財三也요 多子四也
요 彊族五也라

54) 孤臣孽子 : 임금에게서 멀어진 외톨이 신하와 자식 대접을 받지 못하는 서자庶子.

55) 清白 : 청렴 결백淸廉潔白함, 즉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음을 이르는 말.

56) 貪墨 : 탐욕스럽고 하는 짓이 더러움.

57) 恬退 : 명리名利에 담담하고 편히 양보함.

58) 躁競 : 조금씩 굴면서 경쟁함.

90. 或問 子亦有惡(오)乎오하니 曰 有라 惡(오)富貴而驕하고 貧賤而惰者라

91. 將敗之家는 眼無人하고 將滅之家는 眼無君하고 將敗之國은 眼無賢하고 將滅之國은 眼無天이라

92. 世治則臣職篤於朝廷하고 友誼敦於士類하며 世亂則臣分盡於草莽⁵⁹⁾하고 友道見於屠販⁶⁰⁾이라

93. 煦濡⁶¹⁾之恩과 姑息⁶²⁾之政은 君子不能也요 皎厲⁶³⁾之行과 已甚⁶⁴⁾之論은 君子不爲也라

59) 草莽 : 초야(草野). 민간.

60) 屠販 : 백정과 장사치. 곧 지위가 미천한 사람.

61) 煦濡 : 온화하게 대함. 여기서는 '작은 사랑'을 뜻함.

62) 姑息 : 일시의 안일. 임시 방편.

63) 皎厲 : 깨끗하고 엄격하게 처신함. 여기서는 '자신을 뽑내는 행동'을 뜻함.

64) 已甚 : 정도가 지나침. 너무 지나침.

94. 君子喜揚人善하고 小人喜揚人不善이라 達人常欲人達하고 窮人常欲人窮이라 吉人⁶⁵⁾喜聞人長하고 庸人⁶⁶⁾喜聞人短이라 有餘者常譽人하고 不足者常毀人라 僕嘗有語曰 勝於我者慕之하고 等於我者愛之하고 不及於我者憐之면 天下可太平이라하다

95. 扶衰遏旺은 等是逆天이나 然君子或舍生而爲之者는 盡分故也라

96. 古之君子不好名하나 今之君子當好名하고 古之君子不避嫌하나 今之君子當避嫌이라

97. 世治而君子之難進者有四라 才不可以自售하고 道不可以苟合하고 近而無因則不入하고 遠而無介則不出이라

98. 聖賢最是熱心腸⁶⁷⁾이요 英雄本自⁶⁸⁾冷眼孔이라

65) 吉人 : 좋은 사람. 성정이 바르고 착한 사람.

66) 庸人 : 식견이 얕아 성과가 없는 사람.

67) 熱心腸 : 따뜻한 마음씨. 또는 열성적인 마음.

68) 本自 : 본래부터. 줄곧.

99. 酒色財宦에 無愧於心이라야 方可稱丈夫니라

100. 一日之節은 在器하고 百年之節은 在志하니 器濫則出하고 志荒則醉
니라

101. 母曰麥硬하라 前村未炊요
母曰麻麤하라 視彼赤肌하라

102. 節之所以閑其淫也요 制之所以防其軼也라 雖然其節之制之를 皆循
天則(칙)之本然이요 而非人之私所能爲也니라

103. 索(삭)絢⁶⁹爲罟한대 安能捕虎리오

104. 曉月之觀를 豈自昏候오

105. 人知坐輿樂(락)이라도 不識肩輿苦라

69) 索絢：새끼를 꿈.

106. 嶺踰越嶺요 川涉越深이라

107. 盜之就拿하면 厥足自麻라

108. 烏狗之浴이라도 不變其黑이라

109. 今夫適千里者는 必先辨其徑路⁷⁰⁾之所在라야 然後有以爲舉足⁷¹⁾之地니라

70) 徑路 : 지름길. 빠른 길.

71) 舉足 : 발을 들. 걸음을 걸음.

110. 善視者未盡善聽矣이요 善言者未盡善動이라

111. 若通其小者는 以爲徑過之階級하여 因進不已면 可通其大者니 至於
遠者深者에도 莫不皆然이라

112. 傳聞不如躬聞이요 躬聞不如親見이요 親見不如親自當之니라(崔漢
綺, 《氣測體義》 〈觀人取人〉)

113. 薄有才技라도 而不善讀書면 反不如無才技而不讀書之爲愈也니라

114. 精思力行이면 何憂不至리오

115. 志不定이면 不立하고 容不定이면 不肅하고 步趨⁷²⁾不定이면 不端
하고 出言辭不定이면 不溫이니라

72) 步趨 : 걸어감.